

목회의 프락



이동균 목사
해성교회 담임

해마다 5월이 오면 마음부터 무거워진다. 오월길은 이팝나무 하얀꽃과 함께 그 날의 피와 눈물의 역사도 소환한다. 제주 4·3과 5·18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아직도 그 역사를 다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공식 명칭으로는 제주 4·3은 '사건'이고, 5·18은 '민주화운동'이다. 그러나 행정의 이름만으로 그 깊은 고통과 저항의 성격을 다 담을 수는 없다. 제주 4·3은 국가폭력의 비극이었고, 5·18은 국가폭력 앞에서 공동체를 지키려 했던 시민들의 항쟁이었다. 법은 '운동'이라 부를지라도, 역사는 '항쟁'으로 기억한다.

나는 1980년 당시 스물셋 청년이었다. 막 제대하여 예비군 동원훈련 참여를 위해 고향을 찾았다.

법은 운동이라 부르고, 역사는 항쟁이라 기억한다

- 제주 4·3과 5·18을 다시 읽는 그리스도인의 마음 -

그러나 길이 끊겨 광주로 복귀할 수 없었다. 열흘 쯤 뒤 돌아와 보니 총알과 총탄 흔적이 곳곳에 남아 그날을 말하고 있었다. 나는 그 미안한 마음으로 5·18 해설사가 되어 그 날의 현장을 설명하는 일에 참여하여 빛을 갈고 싶었다.

오월 광주는 단지 저항의 현장만이 아니었다. 피와 밥을 나는 생명공동체요, 범죄가 없는 절대공동체였다. 정규군에 맞서 삶의 터전을 지켜 내리는 항로군이었던. 사람들은 위험 속에서도 서로를 돌보고, 먹이고, 살렸다. 5·18은 민주주의를 향한 인권의 투쟁이요,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시민항쟁이었다.

그 광장에는 오래된 작은 원형 분수대가 있다. 1980년 5월, 그 분수대에는 분수 대신 시민의 말과 눈물, 성토와 토론이 분출했다. 그곳은 광주가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한 뜨거운 아고라였다. 훗날 이집트 여왕 중 어두운 밤, 패키지 대열을 벗어나 '타흐리르 광장'을 보고 싶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타흐리르는 지금도 내게 '광장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자리이고, 광주의 민주광장은 여전히 그 물음에 눈물로 대답하는 자리다.

'국립 5·18 민주묘지'는 현재 진행형의 공간이다. 또 망월묘역은 더 특별하다. 국립묘지가 정리된 기억의 자리라면, 망월은 아직도 살아 움직이며 소리치는 현대사의 현장이다. 그곳에는 5·18만이 아니라 민주, 교육, 노동, 통일운동을 위해 투신한 분들이 함께 계신다.

제주 4·3과 5·18은 서로 다른 지역의 역사이지만, 그 바탕에는 맑은 상처가 있다. 국가폭력으로 민간인이 희생되었고, 긴 세월 왜곡과 침묵을 견뎌야 했으며, 뒤늦게라도 진실과 명예 회복의 노력이

이어졌다. 여기에 4·19와 6월항쟁까지 놓고 보면, 이름은 달라도 모두 불의한 권력에 맞서 생명과 자유, 민주주의를 만들어 온 민중사이다. 그 점에서 4·3과 5·18은 별개의 지역의 사건이 아니라, 한국 현대사가 흘린 피와 눈물의 큰 강물 줄기이다.

이 역사들을 세계에 알려 낸 문화의 힘도 컸다. 글로써 제주 4·3과 5·18을 기록하고 증언해 왔지만, 한강 작가의 작품과 노벨문학상 수상은 이 땅의 상처를 세계 독자들이 함께 읽는 인간의 문제로 넓혀 놓았다. 한 지역의 아픔이 더 이상 지역의 기억에 머물지 않고, 세계의 윤리적 질문이 된 것이다. 문화는 총알 자국과 울음의 기억을 멀리 있는 사람들도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바꾸어 놓았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역사 앞에서 더 깊이 물어야 한다. 교회는 이 땅의 상처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단지 정치의 문제를 넘어 신앙의 양심으로 더 깊이 봐야 한다. 성경의 하나님은 억울한 피의 소리를 들으시고, 짓밟힌 이들의 신음을 보고 들으셨다. 출애굽 과정과 예언자들의 하나님도 그랬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힘 있는 자의 논리보다 울고 있는 사람의 눈물에 더 가까이 가셨다.

교회가 4·3과 5·18을 기억하는 것을 이념의 편을 드는 일이 아니다. 이는 고통받는 이웃의 현실 앞에서 복음의 책임을 묻는 일이다. 5월의 교회는 기념예배와 함께 그 때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살아남은 이들의 상처를 품으며, 다시는 국가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양심의 언어를 지

켜 내는 공동체여야 한다. 이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앙인들의 역사적의식이라.

교회는 시민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구조적 어둠과 무질서를 직시한다.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그 희생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의 사회를 봐야 한다. 부활 신앙은 아픈 역사와 고통을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시 일으킨다는 희망을 품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4·3과 5·18의 기억은 한 국교회에 회개와 책임, 그리고 용기를 함께 묻는 자리이다.

오늘 세계가 다 인다고 해서 우리의 책임을 끝낼 수 없다. 그 묘역에 잠든 초등학교, 중고생, 청년, 노년의 삶을 잊고 살아간다. 제마다 꿈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계속 살려낸 일상이 있었다. 그 삶들이 국가폭력으로 끊겼다. 살아남은 우리는 이들을 기억해야 한다.

역사는 민중의 봉기를 '폭동'라 불렀다. 역사는 폭도가 아니라 시민이었고, 난동이 아니라 저항이었고, 혼란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려는 인간의 몸부림으로 본다. 그리스도인은 이 지점에서 거짓 이름을 삭제하고 진실한 이름을 붙여야 한다. 상처를 덮는 침묵보다, 진실을 말하는 양심이 복음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다시는 이런 역사에 '폭동'라는 이름이 붙지 않는 나라, 기억이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되는 나라, 평화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그 길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일, 오늘 우리가 제주 4·3과 5·18을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교회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마지막 책임이기도 하다.

이주의 추천도서

저자/역자 : 제프 밴더스텔트/장성은 | 출판사 : 도서출판 토기장이



예수 포화 우리의 일상이 예수로 가득 할 때까지

「복음의 언어」를 통해 복음에 유창한 삶을 강조한 제프 밴더스텔트의 또 다른 도전, 「예수 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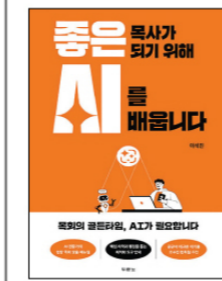
복음으로 흠뻑 젖은 소마교회 이야기를 통해 일상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길을 안내하다

하나님은 교회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 곳곳을 예수님의 입재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 포화'다! 모든 도시, 모든 일터, 모든 학교, 모든 가정이 예수님의 입재로 포화된 모습을 상상해 보라. 우리의 모든 일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예수 포화'는 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 개개인의 삶과 공동체적 삶에서 제자훈련과 사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가능한 일이다. 저자는 그 일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소마교회 사역을 통해 보여 준다. 먼저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일상을 예수로 채워 나가기 시작하는 생생한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런 일들이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예수 포화'를 이루어나가기 원하신다. 진정으로 복음에 흠뻑 젖은 삶을 원한다면, 우리의 삶 구석구석이 예수님의 입재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이 책이 던지는 '예수 포화' 도전에 응답해 보자.

책 읽기 살리기



이석진 지음/
두란노 펴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복되고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천동설이 당연하던 중세 시기에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에서 기원한다는 것이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특히 과학의 발전으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인공지능 즉 AI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크게 바꿔 놓고 있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진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나 수고가 있어야만 얻을 수 있는 일의 결과물들이 이제는 너무나 짧은 시간에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에 점점 사람이 서 있을 자리가 없어진다는 불안감이 느껴지고 있다.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삶의 변화 속에 목회의

현장에도 이러한 변화는 불가피 할지도 모른다. 변화와 혼돈의 시기를 관통하고 있는 신앙인들, 특히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 한 권을 소개해 본다.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 AI를 배웁니다」는 목회의 현장에서 AI라고 하는 최첨단의 과학의 산물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한 저자의 답이라 할 수 있다. 저자인 이석진 님은 AI 스타트업 '슈퍼러닝'(Super Learn)의 대표이자 이론을 넘어 현장에 서 성과를 내는 '실무형 AI' 전문가이다. 평생 교회의 마

실교회를 가르치며, 엑셀로 재정 장부를 만드는 법이나 행사 포스터를 디자인하는 법, 복잡한 행정 공문을 작성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 던져진 목회자는 '반능 해결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현장에서 부교역자로 사역을 해본 경험이 있기에 이러한 저자의 평가는 피부로 많이 와 닿았다.

목회자의 길을 가기 위해 함께 공부했던 동기들 중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 고민을 토로하며 어려워했던 기억이 있다. 목회를 하면

나가는 것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될 것이다. 극단적으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도구를 선하게 사용하게 된다면 본질은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회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마음으로 이러한 안내서를 펴낸 저자의 선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 역시도 이러한 AI의 도움을 받아 오랜 시간이 걸릴 일들을 빠르게 처리하여 불필요한 육체적 소진을 막는 도움을 얻고 있다.

시대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에 새로운 것을 배척하고 좌악시했던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 AI를 배웁니다

담을 씌며 성도의 길을 준비하신 할아버지의 빗자루를 보며 자신이 가진 전문 지식으로 고단한 목회자의 길을 살피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다.

강단에 서는 목회자는 아니지만,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야 할 현장 목회의 어려움과 그 무게를 알기에, 저자는 편리한 AI 안내서를 넘어 목회자 본질에 집중하도록 돕는 AI 활용서를 기획하게 되었다.

저자가 이 책을 저술하며 떠올린 목회자의 모습을 책에서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 교회의 목회자상은 지나치게 '초인적'입니다. 신학 대학원에서는 성경과 신학,

가장 중요한 일인 말씀 준비와 성도를 만나는 일보다도 급한 행정업무와 다양한 전산 작업이 중요한 일에 걸림이 되어선 안된다는 생각에 AI의 도움을 통해 목회의 핵심을 놓치지 않게 하려는 저자의 마음이 책 속에 담겨있다. 열마진에 기독교 관련 실문 조사를 하는 업체에서 배포한 자료를 보면 목회자들이 AI의 도움을 받아 실교 준비나 기타 목회에 활용하고 있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활용이 목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한 결과도 보고 하고 있지만, AI가 점점 그 영역을 확장해

가 기억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우리에게 지적 능력은 하나님의 선물이 다. AI 또한 우리의 삶을 세우는 돕는 손길이라고 받아들여 보면 어떨까?



김병모
한국실로임선교회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2026학년도 총회신학 신·편입생 모집

본 총회신학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인준 정통 보수주의 신학연구원입니다. 청교도적 개혁주의 보수신학의 요망으로서 신학과정을 이수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강의를 중심으로 말씀의 기초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여러분의 사역에 성실한 길잡이가 되도록 본 총회신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장 신혜란 목사

대표전화

062)511-2491

010-3161-2491

http://www.gchongsin.com

과정	모집학과	학제	모집인원	자격
신학부	신학과 (주말반, 야간)	8학기	30명	고졸, 세례받은 자 전문대졸자는 3학년 편입가능
	목회학과 (주말반, 야간)	8학기	20명	세례받은 자, 평신도, 사명자
신학연구원	신학과 (주말반, 야간)	6학기	00명	신학부 졸업 및 졸업 예정자 동등학력 소지자
	목회학과 (주말반, 야간)	6학기	00명	
학술원	성경심화과정	2년	00명	목회자, 신대원 졸업자
평신도 성경연구반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체계화함. 4학기(1년) 평신도 지도자 과정 후 신학 과정에 편입할 수 있음			
특전	신대원 졸업자는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에 편입 가능 여목제도 있음			

원서교부 및 접수처

원서교부 : 광주, 전주, 순천 총회신학

원서접수 : 수시 접수

*전형료는 없음

총회신학의 장점

최고의 교수진이 있습니다.

남·여 목사안수 / 각종 장학혜택
교회개혁 및 설립인허, 법인등록 등
각종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입학문의

광주 062)511-2491

전주 063)272-2491

순천 061)751-2491

수양관(곡성) 061)362-2491

광주광역시 북구 태봉로 56(신안동)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39(금암동)

전남 순천시 중앙3길 4(장천동)